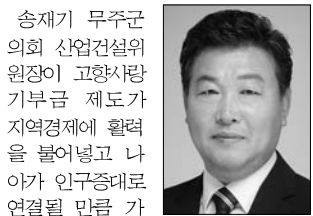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필요”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홍보전략·활용방안 제안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인구증대로 연결될 만큼 가능성이 크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10년 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금을 활용해 육아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인구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개선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와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현재 무주에 거주하는 군민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나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적극 알리며 무주군이 SNS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이어 “고향사랑기

부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유지·발전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1년에 한 번씩 기부자를 초대해 성과를 보고하고 만남을 통해 무주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답례품 선정 방안도 나왔다. 무주만의 특색과 사연이 담긴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송재기 위원장은 “태권도원이 있고 국제태권사범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태권도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2023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에 나선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추진

장수군, 전북도 공모 선정 등 8개 마을에 도시가스 수준 LPG 공급

장수군은 2023년 전북도 공모사업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계남면 화양리 난랭마을 등 6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사업’으로 장계면 송천리 서변마을, 계남면 화음리 고장마을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농촌 외곽지역 마을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 공동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 배관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구는 개별탱크를 설치해 연료를 공급한다.

군은 올해 난랭마을 등 8개 마을 411세대에 53억 8천만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수준의 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1개 마을 2,852세대에 마을 단위 LPG배관망을 보급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스를 주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기존 LPG 용기와 등유 보일러 대비 약 30~40%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공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일부 농촌지역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으며,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구천동 관광특구 재정비 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노후시설 매입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 제시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재개발 구천동 관광특구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비 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은 특례 제도를 기회로 삼아 무주군 지역소멸의 위기를 관광이라는 무기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한 해”라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의 변화와 혁신방안을 제안하며 옛 구천

동 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노후화된 상가와 숙박 시설을 매입해 재정비·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천동 인근 관광지 방문객은 최근 5년간 10% 감소해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관광특구 사업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집단시설지구 상가와 숙박시설이 40년 이상 돼 최근 관광행태에 부합하지 않고 경쟁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상가의 안전성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후화된 주변

상가를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등방천 주변을 야간경관 명소로 만들어야 하며 덕유산리조트 입구에서 구천동까지 경관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계획관리지역인 무주리조트 입구와 구천동 상가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무주 덕유산리조트, 학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주구천동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군민 대상 폐암 CT 무료검진 실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무주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한 폐암 CT 무료검진 사업량을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암 검진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폐암이 국내 주요 암 발생률 1위인데다 사망자는 연간 1만 8천여 명으로 20년 이상 부양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했다.

무엇보다 비흡연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30%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여성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 폐암의 원인은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조리나 청소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포함돼 국가 암 검진에서 제외된 비흡연자도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

무주군민 50세 이상 검사 대상자들은 건강검진실에서 접수 후(사전예약 필수, 전화예약 가능) 영상의학과에서 폐 CT를 촬영하면 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유소견자에 대해 내과전문의 상담 및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폐암 검진에서 흉부 CT는 폐병변 림프절, 종격동 등 검사에 의해 암의 원발부위 및 크기와 주변 조직 침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폐암의 진행 정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폐암은 금연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발병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조기검진과 예방활동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암 조기 발견율은 20.7%(위암 61.6%, 유방암 57.7% 등) 다른 주요 암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초기 증상이 전혀 없어 발견이 어렵다.

한편 지난해 한해 보건의료원에서는 881명이 폐암검진을 받았으며, 그 중 폐암이 의심되는 7명을 포함해 총 82명의 이상 소견자가 발견돼 상담이 진행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 구강건강 지킴이... 불소양치 가글이 ‘호응’

진안군, 코로나 대응 방법 추진 주민들 반응 결과 만족도 높아

진안군은 구강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점의 코로나 대응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소양치 가글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불소양치 가글은 어른 이부터 노인까지 세균 효소 활동과 치아를 녹이는 산 생성 억제 등에 관여해 치아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해 간단하게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 불소양치 사업 시행 시에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지역 내 보건기관 의료인과의 협업을 통해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불소양치 가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 후 주민들의 반응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불소 가글을 찾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진안군은 구강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점의 코로나 대응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소양치 가글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글 사용자들은 “시린 이 증상이 완화되고 개운한 기분이 들며 자고 일어나도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 구강보건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불소 양

치 가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구강 건강을 챙기는 작은 습관을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 063-430-8538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쌀 수급 안정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쌀 대신 밀·콩·조사료 재배하면 ha당 50~430만원 지원

진안군은 지난 17일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화용직불제(논이모작)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겨울철농

안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같은 필지에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루쌀은 올해 생산단위로 지

정반아 재배한 농지만 가능하며, 하계 조사료는 지난해 비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모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함께 걸으며 건강 챙기고... 힐링도 하고...’

진안군체육회, 고로쇠축제 연계 군민걷기행사 추진

진안군체육회(회장 정봉운)는 오는 3월 11일 주천면 운일만반입삼거리광장에서 제19회 진안고로쇠운장삼 고로쇠 축제와 연계해 군민걷기행사를 개최한다.

군민걷기행사는 관내·외민 관계없이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행사 당일 11시부터 주천면 삼거리광장 주차장에서 접수 후 개별 출발해 무지개 다리까지 약 2km 코스로 진행된다. 도착한 인원은 진안고로쇠 행복상품권과 고로쇠 물을 수령할 수 있다.

걷기 행사 후에는 희망 인원에게 한해 작년 7월에 개봉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운일만반입삼 구름다리로 안내할 예정이다.

걷기 행사와 함께 축제현장에서는 11일부터 2일간 고로쇠 수액채취 체험, 고로쇠 불링대회, 고로쇠 골든벨, 고로쇠 가수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

로그램과 볼거리가 제공되고 메인광장에서는 체험 및 먹거리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군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걷기문화를 정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고로쇠 축제와 연계한 군민걷기행사로 성공적인 ‘축제와 천혜의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름다리 개봉 홍보까지 누리는 시너지 효과를 특별히 거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봉운 회장은 “군민걷기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걸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끽해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고로쇠 축제의장에서 여러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을 맘껏 향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모집대상 업체는 장수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이며 지역의 다양한 공급업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추가 공모를 통해 기존의 농·축산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장수군의 특색있는 지역특산물·제품 등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금 시스템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20개 품목을 선정할 바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신청 접수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장 단위로 기상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정보에 농가의 지역적 특성과 현장 기상정보를 반영해 농업인에게 날씨, 재해정보, 작물별 대응조치 등 정보를 매일 인터넷과 휴대문 문자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2018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북 14개 시·군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 서비스로 신청을 한 농가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직자 대상 화상외국어 운영

무주군이 올해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활용 습득을 위한 화상외국어 교육에 들어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글로벌 농촌관광 시대에 적응하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화상외국어 운영에 착수했다.

전회(화상) 외국어 과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개설해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교육기관의 레벨테스트 후 공직자 희망 시기에 교육이 진행되며 주2회, 주3회 선택해 운영된다. 자부담 후 수강기준 충족 시 교육비가 지급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이무병 과장은 “외국 현지인과 실시간 대화를 통한 외국어 실전 활용능력이 배양되는 효과가 있어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다”라며 “일과시간 외 상시적·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개인별 학습기회가 부여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